

## 일 농촌지역 여고생의 흡연실태와 자아존중감 및 문제행동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나 영 화 · 박 오 장

---

### A Study on Smoking Status, Self-Esteem, Problematic Behavior of High School Girls in a Rural Community

Young-Hwa Na · Oh-Jang Park

*Department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Chonnam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smoking status, self-esteem and problematic behaviors of high school girls in a rural community, and to suggest a basic education material for a smoking prevention program of school health.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93 high school girls in K. Gun of C. Do. during the period of Mar. 2nd to 15th, 2004. Data was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for self-esteem (Rosenberg, 1965), problematic behaviors (cho, 2000). The reliabilities of each instruments were Chronbach's  $\alpha$  = .77 and .91.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D,  $\chi^2$ -test, *t*-test, ANOVA and Scheffe test in SPSS 10.0 program.

The result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smoking girls were 3.3% and those who had smoking experiences were 13.8% in the 693 high school girls.
2. The first time of smoking experience was highest in middle school (64.2%), followed by primary school (19.3%), high school (14.7%), and kindergarten (1.8%).
3. Smoking motivation was highest in curiosity (62.0%), followed by reduction of stresses (15.0%), and recommendation of their seniors or friends (14.0%).

4. The most frequent smoking places were bathroom or toilet (37.0%) and game room (26.1%).
5. Smoking amount a day of the smoking girls was most frequent in the less than ten Cigarettes (35.0%) and over than ten ones (35.0%), followed by less than five ones (30.0%).
6. The smoking rat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irls of below grade point than those of higher ( $\chi^2=17.603, p=.001$ ), in the dormitory or the other resident than those of their own home ( $\chi^2=8.628, p=.004$ ), in the higher economic status than lower ( $\chi^2=32.153, p=.001$ ), in the unhappy family atmosphere than happy family ( $\chi^2=25.244, p=.001$ ), and in the situation of living with smoking family ( $\chi^2=17.785, p=.001$ ).
7. The problematic behavior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in the smoking students than those of smoking experience and non-smokers, and the smoking experience student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non-smoking ( $F=90.530, p=.001$ ).

**Key word** : *Smoking status; Self-esteem; Problematic behavior; High school girl*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고도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과 사회적 가치관이 혼란해진 오늘날 우리나라는 청소년 흡연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중의 하나에 속하고 있다(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 역시 갈수록 증가하고 집단화, 조직화, 흉포화, 폭력화, 저연령화 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청소년백서, 2003) 이에 대한 대처가 국가와 사회 및 가정과 학교교육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시점에 처해 있다(지선하, 2001).

최근 통계에 의하면 장차 자녀 잉태와 양육 및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여학생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도시지역 흡연율보다도 농촌지역의 흡연율이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여(건강길라잡이, 2001), 농촌지역 여고생의 흡연실태와 이와 관련되는 요인을 파악해 볼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일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여고생을 대상으로 흡연실태 및 흡연 관련특성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자아존중감,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흡연 예방 대책을 모색하여 학교보건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 가. 여고생의 흡연실태를 파악한다.
- 나. 여고생의 흡연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다. 여고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흡연율을 규명한다.
- 라. 흡연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문제행동 정도를 규명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C도 K군에 소재한 1개 인문계와

4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여학생 총 714명 전수를 대상으로 2004년 3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대상학교 교과담당 교사에게 조사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수업시간에 교과담당교사가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여 응답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 6부를 제외한 총 693부를 분석하였다.

## 2. 연구 도구

### 1)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여 최정아(1996)가 번안한 4점 척도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문항 5개와 부정적인 문항 5개의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으로 하였으며, 부정문은 역으로 환산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77$ 이었다.

### 2) 문제행동 측정도구

문제행동 측정도구는 조운정(2000)이 개발하여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총 20문항의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제행동은 4가지 형으로 공격적 행동 5문항, 도덕적 행동 5문항, 음성적 행동 5문항, 물질적 행동 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흡연실태는 빈도와 백분율로,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흡연율의 차이는  $\chi^2$ -test로, 흡연여부에 따른 자아존중

감 정도와 문제행동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여고생의 흡연 실태

연구 대상자의 흡연실태를 조사한 결과 담배를 매일 규칙적으로 피우고 있는 학생이 1.0%, 불규칙하게 피우고 있는 학생이 2.3%로 현재 흡연하고 있는 학생은 3.3%였다.

현재 피우지 않으나 과거에 피워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14.7%였다(표 1).

### 2. 여고생의 흡연관련 특성

대상자의 흡연관련 특성은 표 2와 같았다.

#### 1) 최초 흡연시기

현재 흡연 중인 학생과 과거에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는 학생의 최초 흡연 시기는 중학교가 각각 85.0%, 5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초등학교(19.3%), 고등학교(14.7%)의 순이었는데, 2.2%는 유치원 때에 흡연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흡연시작 동기

흡연군에서는 친구나 선배의 권유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가 각각 2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호기심(20.0%), 멋으로(15.0%)의 순이었다. 흡연경험군에서는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경우(70.0%)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스트레스 해소(13.0%), 친구나 선배의 권유(12.0%)의 순이었다.

표 1. 여고생의 흡연실태 (n=693)

흡연실태	N	%
매일 규칙적으로 피우고 있다	7	1.0
불규칙적으로 피우고 있다	16	2.3
현재피우지 않으나 피워본 경험이 있다	102	14.7
전혀 피워본 적이 없다	568	82.0
계	693	100.0

표 2. 여고생의 흡연관련 특성 (n=125)

항 목	흡연군 흡연경험군 계		
	N(%)	N(%)	N(%)
<b>최초 흡연시기</b>			
유치원	0( .0)	2( 2.2)	2( 1.8)
초등학교	0( .0)	21( 23.6)	21( 19.3)
중학교	17( 85.0)	49( 59.6)	66( 64.2)
고등학교	3( 15.0)	17( 14.6)	20( 14.7)
<b>흡연시작 동기</b>			
호기심으로	4( 20.0)	63( 70.0)	67( 62.0)
친구, 선배의 권유	5( 25.0)	11( 12.0)	16( 14.0)
스트레스 해소	5( 25.0)	12( 13.0)	17( 15.0)
멋으로	3( 15.0)	0( .0)	3( 3.0)
기타	3( 15.0)	3( 5.0)	6( 6.0)
<b>흡연장소</b>			
자기방	1( 5.3)	4( 6.0)	5( 5.9)
화장실	7( 37.0)	19( 29.7)	26( 30.6)
오락장	5( 26.1)	12( 18.0)	17( 20.0)
장소와 무관	3( 15.8)	16( 24.3)	19( 22.3)
기타	3( 15.8)	15( 22.0)	18( 21.2)
<b>1일 흡연량</b>			
5개비 미만	5( 30.0)	10( 90.9)	15( 53.6)
10개비 미만	6( 35.0)	1( 9.1)	7( 25.2)
10개비 이상	6( 35.0)	0( .0)	6( 21.2)

\* 무응답 제외

### 3) 흡연장소

흡연군과 흡연경험군 모두 화장실이 각각 37.0%,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오락장과 장소와 무관이 각각 26.1%와 24.3%로 나타났다.

### 4) 1일 흡연량

흡연군의 경우가 10개비 미만과 10개비 이상이 35.0%로 가장 많았고, 흡연 경험군의 경우는 5개비 미만이 90.9%로 가장 많았다.

## 3. 여고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흡연율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흡연율의 차이는 표 3과 같았다.

### 1) 학년별 흡연율

흡연군에 있어서 1학년이 4.8%로 가장 높았고 흡연경험군은 3학년이 1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 2) 학교성적별 흡연율

흡연군에서 학교성적이 하인 경우가 7.5%로 성적이 중위(1.8%)나 상위(2.1%)인 경우에 비해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고 흡연경험군에서도 성적이 하인 경우(19.5%)가 중위(13.8%)나 상위(12.3%)에 비해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chi^2=17.603, p=.001$ ).

### 3) 현거주지별 흡연율

흡연군에서 현거주지가 자기 집(2.1%)이나 기숙사(5.2%)보다 자취 혹은 하숙인 경우(6.5%)가 흡연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흡연 경험군에서는 기숙사(17.6%)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chi^2=8.628, p=.004$ ).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흡연율

(n=693)

인구학적 특성	흡연군	흡연경험군	비흡연군	계	$\chi^2$ (p-value)
	N(%)	N(%)	N(%)	N(%)	
<b>학년</b>					
1학년	11( 4.8)	33(14.3)	186(80.9)	230(100.0)	3.523 ( .356)
2학년	6( 2.0)	31(13.2)	199(84.3)	236(100.0)	
3학년	6( 2.7)	38(16.7)	183(80.6)	227(100.0)	
<b>성적</b>					
상	3( 2.1)	18(12.3)	125(85.6)	146(100.0)	17.603 ( .001)
중	7( 1.8)	53(13.8)	324(84.4)	384(100.0)	
하	12( 7.5)	31(19.5)	116(73.0)	159(100.0)	
<b>현거주지</b>					
자기집	9( 2.1)	56(13.0)	364(84.9)	429(100.0)	8.628 ( .004)
기숙사	12( 5.2)	41(17.6)	179(77.2)	232(100.0)	
기타(자취, 하숙)	2( 6.5)	5(16.1)	24(77.4)	31(100.0)	
<b>가정경제</b>					
상	4(25.0)	4(25.0)	8(50.0)	16(100.0)	32.153 ( .001)
중	12( 2.1)	83(14.6)	472(83.3)	567(100.0)	
하	7( 6.7)	13(12.5)	84(80.8)	104(100.0)	
<b>가정의 분위기</b>					
행복하다	6( 2.0)	37(12.3)	258(85.7)	301(100.0)	25.244 ( .001)
보통	11( 3.1)	55(15.6)	286(81.3)	352(100.0)	
행복하지 않다	6(15.0)	10(25.0)	24( 60.0)	40(100.0)	
<b>가족 흡연여부</b>					
예	21( 5.3)	69(17.4)	307(77.3)	397(100.0)	17.785 ( .001)
아니오	2( .7)	33(11.1)	261(88.2)	296(100.0)	

4) 가정경제 수준별 흡연율

흡연군과 흡연경험군 모두 경제수준이 상위에서 흡연률이 각각 25.0 %로 중위나 하위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chi^2=32.153$ ,  $p=.001$ ).

5) 가정의 분위기에 따른 흡연율

흡연군과 흡연경험군 모두 가정 분위기가 행복하지 않다고 한 군에서 각각 15.0%, 25.0%

로 행복하다거나 보통이라고 한 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흡연율을 보였다( $\chi^2=25.244$ ,  $p=.001$ ).

6) 가족의 흡연여부에 따른 흡연율

가족들 중 흡연자가 있는 경우에 흡연군과 흡연경험군 모두에서 흡연률이 각각 5.3%와 17.4%로 흡연자가 없는 경우의 0.7%와 11.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chi^2=17.785$ ,  $p=.001$ ).

#### 4. 흡연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

흡연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의 차이(표 4)는 흡연군이 2.61점, 흡연경험군이 2.59점, 비흡연군이 2.67점으로 비흡연군의 자아존중감이 흡연군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 > .05$ ).

표 4. 흡연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의 차이 (n=693)

흡연여부	N	M±SD	F	p
흡연군	23	2.61±.52	1.645	.194
흡연경험군	102	2.59±.43		
비흡연군	568	2.67±.47		

#### 5. 흡연여부에 따른 문제행동 정도

흡연여부에 따른 문제행동 정도의 차이(표 5)는 흡연군이 2.35점, 흡연경험군이 1.79점, 비흡연군이 1.38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F=90.530, p=.001$ ),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한 결과 흡연군의 문제행동 점수가 흡연경험군이나 비흡연군에 비해, 흡연경험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문제행동 점수가 높았다.

표 5. 흡연여부에 따른 문제행동 정도의 차이 (n=693)

흡연여부	N	M±SD	Scheffe	F	p
흡연군	23	2.35±.70	a	90.530	.001
흡연경험군	102	1.79±.45	b		
비흡연군	568	1.38±.39	c		

### IV. 논 의

본 조사에서 나타난 C도 K군 여자고등학생

의 흡연율은 3.3%로 이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2001)의 6.1%에 비하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초 흡연 시기는 양인욱(2002), 이선행(2002)의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흡연시기가 훨씬 빨라졌으며, 흡연시작 동기로는 호기심으로 피우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임우경(1999), 정동인(2001), 강경아와 장주동(200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고, 흡연장소는 흡연군과 흡연 경험군 모두 주로 화장실이 가장 높게 나타나 강경아와 장주동(2003)의 연구와 정동인(2001)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1일 흡연량은 흡연군의 경우 이선행(2002), 한국금연운동협의회(2003), 강경아와 장주동(2003)의 연구와 비교할 때 흡연량이 많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흡연율을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흡연군의 경우 1학년이 가장 높았다. 이는 지선하(1999)의 연구에 의하면 학년이 높아갈수록 흡연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학교성적별로는 학교성적이 나쁠수록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김영희(2000), 정동인(2001)의 조사와 일치하였다. 현거주지별로는 자택인 경우보다 비자택인 경우가 훨씬 높게 드러났고, 가정경제수준별로는 상류, 하류, 중류 순이었는데 이는 임우경(1999), 양인욱(2002)의 연구에서 하류인 경우가 흡연율이 많았고, 중류, 상류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가정의 분위기에서는 ‘행복하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이다’, ‘행복하다’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우경(1999), 김영희(2000), 이선행(2002) 연구에서와 일치하였다. 또한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을 경우에 흡연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정동인(2001), 이선행(2002), 양인욱(2002)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흡연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으나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다소 낮아 여고생의 흡연집단이 비흡연 집단보다 비교적 부정적 자아개념으로 나타났다고 한 남옥희(1995)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흡연여부에 따른 문제행동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흡연군이 흡연경험군이나 비흡연군에 비해, 흡연경험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문제행동이 비교적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바, 이는 흡연으로 인한 신체적 건강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문제행동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 V. 결론 및 제언

1. 여고생의 흡연실태: 대상자 693명 중 현재의 흡연자는 3.3%이었고, 과거의 흡연경험자는 13.8%이었다.
2. 흡연군과 흡연경험군의 흡연관련 특성: 최초의 흡연시기는 중학교(64.2%), 초등학교(19.3%), 고등학교(14.7%), 유치원(1.8 %)순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시작 동기는 호기심(62.0%), 스트레스 해소(15.0%), 친구나 선배의 권유(14.0%)의 순이었고, 주 흡연 장소는 화장실이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일 흡연량은 5-10개비와 10개비 이상이 각각 35.0%, 5개비 미만이 30.0%였다.
3. 여고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흡연율에 차이를 보인 변수는 학교성적( $\chi^2=17.603$ ,  $p=.001$ ), 현거주지( $\chi^2=8.623$ ,  $p=.004$ ), 가정경제수준( $\chi^2=32.153$ ,  $p=.001$ ), 가정의 분위기( $\chi^2=25.244$ ,  $p=.001$ ), 가족의 흡연여부( $\chi^2=17.785$ ,  $p=.001$ )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이 낮은 군, 거주지가 자기 집이 아닌 기숙사나 자취 혹은 하숙하는 학생, 가정경제수준이 낮은 군보다는 높은 군, 가정 분위기

가 불행하다고 표현한 군, 가족 중 흡연자가 있는 군에서 흡연율이 높았다.

4. 여고생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F=1.645$ ,  $p=.194$ ).
5. 여고생의 흡연여부에 따른 문제행동은 흡연군이 흡연경험군이나 비흡연군에 비해, 흡연경험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로 문제행동 정도가 높았다( $F=90.530$ ,  $p=.001$ ).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여고생의 흡연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를 재시도할 필요가 있겠다.
2. 흡연 및 문제행동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유사실험 연구를 제언한다.
3. 청소년의 흡연이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 참 고 문 헌

- 강경아, 장주동(2003). 일부지역 청소년들의 흡연실태. 아동간호학회지, 9(1), 66-72.
- 건강길라잡이(2001).  
<http://www.healthguide.kihasa.re.kr>
- 김영희(2000).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흡연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옥희(1995). 여고생 흡연집단과 비흡연집단의 자아개념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인옥(2002). 여고생의 흡연실태와 흡연예방교육의 활성화 방안. 대전대학교 경영

- 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행(2002). 실업계 여고생의 흡연실태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우경(1999). 일부 농촌지역 흡연여고생의 흡연실태와 식생활 양상 및 혈액성상조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동인(2001). 여고생들의 흡연실태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윤정(2000). 남자정소년의 문제행동과 개인 및 가족관련 변인,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지선하(1999). 흡연현황과 역학적 특성,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지선하(2001). 청소년 여학생 흡연실태(1991-2001),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청소년 백서(2003). 문화관광부, 398, 421, 536.
- 최정아(1996). 자의식과 자존감이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금연운동협의회(2003).  
<http://www.kash.or.kr>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